

62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30차
일시	20. 9. 21. 18 : 30
장소	ZOOM

참석확인 (10/12)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총
○	○	○	○	○	X	X	○	○	○	○	○

□ 보고 안건

1.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

- 간호대 : 9월 22일 학생대표자 회의 진행
- 사과대 : 9월 23일 19시부터 단학대회 진행 예정, 지난 주 가을은 사과제 온라인 진행 완료
- 자연대 : 9월 29일 단학대회 진행 예정, 104관 내 근로 노동자 휴게실 협소하여 다목적실을 휴게실로 전환 요청, 그 대신 학생 자치실 환경 개선하겠다고 교학지원팀이 언급함.
- 의대 : 8월 25일 이후 동맹휴학 진행하여서 휴학 후 사퇴했다가 전국적으로 동맹 휴학 풀면서 지난 주 복학 및 학생회 재심의 투표 후 복귀, 오늘부터 일괄적으로 의과대 학생 수업 진행
- 사범대 : 금일부터 체교과 실기수업 시작, 학지처 및 학장님 요청으로 4,8,12주차 강의 피드백 전수조사 실시
- 경경대 : 수목금 학년대표 선출 완료, 이클래스 통해서 개표 진행하며 발생한 문제점 없었음, 수요일 모금 끝나서 방호의 650벌 기부할 예정, 전달식 일정 정해지는 대로 공유 예정
- 총학생회 : 확대운영위원회 및 돕바 사업에 집중 중, 2학기 학사 관련 설문조사 준비 중(빠르면 목요일에 진행 예정, 차후 2학기 등록금 관련 요구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논의 안건

1. 확대운영위원회

- 통과 안건 내용 수정
- 참석자 명단 및 위임장, 사유서 23일까지 마감
- 학생회비 배분은 확운위 심의 안건 통과 후 진행할 예정
- **중감위 회칙 개정안 검토**
- 20조 2항, 24조 2항 : 확대운영위원회 때 논란이 많았었음. 국어사전 찾아보니 횡수 제한의 의미가 없었으므로 '1회에 한해'로 추가 조항 달고자 함, 연임과 중임 중에서 '중임'으로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여 수정하고자 함.
- 회칙 신설조항 :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회칙 현재 없음,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통해서 신설하고자 함.
-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함 -> 중앙감사위원회 전체인지 두 개가 동일한 업무에 있어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 업무대행 혹은 재선출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함. 기존 중앙감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가 충돌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음 -> 대부분의 학생회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용되고 있고, 위원장이 없거나 100일 이내가 아니라 선출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석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음
-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회에 있는 것은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직이고 선출기간이 길기 때문인데, 중감위는 성격이 다른 기구라는 점에서 재선출을 진행하거나 재선출 기간까지 업무를 대행할 임원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음. 단위별 중감위원을 선발할 것인데 선발된 위원 내에서 임시로 중감위원장을 하거나 선발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임시적으로 맡아도 될 것 같음. -> 기존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회와 중감위에 있어 결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함. 수요일 중감위 회의를 통해 바꿔보도록 하겠음.

- 안건 : 중운위 의결이 필요하므로 중감위 회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음.
- 맞춤법을 전반적으로 검사하면 좋을 것 같음.
- 제29조 : 위원장 선출은 중앙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 중앙감사위원회 선발 기간 등은 중운위와 논의 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함.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반업무'라고 표현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음.
-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학생 대표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검토**
- 온라인 강의에 따른 선거 유형의 변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음.
- 단어 수정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 추가함
- 14조 재적승 -> 재적생, 67조도 문맥 흐름에 맞도록 수정, 30조 라항에 온라인 활용 조항 추가
- 37조 가항 개별유세 내용에도 '단,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에~'라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 '중선관위의 결정'이 아닌 '룰미팅에서의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 5장은 선거기간 동안의 이의제기, 9장은 개표 후의 이의제기이고 해당 선거이의제기는 모든 학우들이 다 할 수 있음.
- '투표는 2일에 걸쳐'보다 '이틀에 걸쳐'라는 표현 -> 회칙이라는 것은 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줌에 투표 기능이 있어서 이 방식 현재 검토 중임.
- 중앙대학교 학생자치를 고민하는 모임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학생들의 연서명 관련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장을 빠르게 주시면 전달 가능할 것 같음.

2. 리더스포럼

- 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 대시보드 활용해서 접속 가능, 수요일 오전부터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원 : 단위별로는 1명씩만 현장 참여
- 310관 B501호, 칸막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리배치 준비 중
- 총장단이 비전을 먼저 발표 후, 질의 시간
- **순서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안성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 서울캠퍼스 단위별 -> 안성캠퍼스 단위별**
-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한 질의 먼저 한 후, 단위별 특성을 지닌 질의를 하는 방향 고려 중
- 총학생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 질의할 예정, 2학기 총장단의 계획을 물어볼 계획임. / 결정권이 학생들에게 없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질의할 예정. 교무위원회나 대학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 -> 1번에 중앙대학교의 비전이라는 표현이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이 듦, 경제적/수업 및 교육 환경 측면 등 분야를 나눠서 분야에 대한 비전을 물어보는 것이 더 구체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음.
-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한 질의 먼저 한 후, 단위별 특성을 지닌 질의를 하는 방향 고려 중.
- 주요 질의들 총학에서만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단과대에서도 나누어 질의 요망
- 경경대 1번 질의도 내용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앞 순서에 해도 좋을 것 같음.
- 안성캠퍼스의 질의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지 -> 확인해보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다면 순서 결정에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음. -> 안성 비대위원장에게 요청 예정

3. 연서명 안건

- 온라인 강의로 인해 오프라인 연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
- 확대운영위원회 안건 산정 제28조 :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 상정 가능 (단과대/학과/학번/이름/연락처) -> 서명에 대한 신뢰성 부분

- 온라인으로 간다면 이름/학번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신뢰성 부분이 우려됨. -> 구글독스나 네이버폼 등으로 양식 작성 시, 학생증 사진 첨부하는 방법
- '중앙대 학생자치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임' 안건 제출 방식 관련 메일 -> 등록금 반환이라는 명제로,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후 중앙운영위원회 권한으로 안건 상정도 가능하다는 점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
- 2학기 등록금 반환 관련하여 어느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반환비율이나 구체적인 방안 논의, 장학금 축소 관련된 내용도 있었음.
- 해당 모임에 정확히 어떠한 논의를 하고자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물어본 후, 안건명 정하면 좋을 것 같음.
- 중앙인에 등록금 반환 관련 피드백 내용의 게시글
- 입장을 번복한 적 없이 등록금 반환은 필요하다고 요구했음, 협의회 결성해서 특별 장학금 형태로. 특별 장학금과 등록금 반환이 아예 다른 의미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회의록 및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글을 바탕으로 기록. 회의록에 100% 모든 내용이 기입되지 않다보니 모든 것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음. -> 접한 정보에 한해서는 해당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교무처장님을 만나거나 총장단과의 간담회에 있어 속기록이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이나 자료를 공개해야할 것 같음. 추후에 질문이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드리고 자체 피드백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 논의안건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보니 발언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모두 기록함 -> 발언자 표기 없이 대화 내용만 기록하는데 상반된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임,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두루뭉술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음.
- 리더스 포럼 때 각 과별 대표자들을 통해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등록금 반환 문제 관련하여 등록금 반환이라는 말과 특별 장학금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늘 말해왔음.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학교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음
-> 반환은 교육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요구, 장학금은 특별한 상황에 주어지는 장학금이므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번 사례가 판례가 될 수 없음
-> 특별 장학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 다른 것으로 보기에겐 무리라고 봄. 학교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라서 등록금의 6%로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함. 반환은 목적이고 특별장학금은 그 수단이라고 생각됨.
->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글에 의하면 학생들은 그러한 전후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워딩을 등록금 반환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것 같음.
-> 특별 장학금 편성 및 지급 안내 공지사항에 보면, 특별 장학금 목적이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등록금 반환의 목적으로 요구되었지만 그 성격을 학교 차원에서는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 같음. 학교 차원의 공지문 내용을 보면 중운위와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음. 등록금 반환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단어 선택에 신중함은 필요할 것 같음.
-> 학교에서 공지를 내보낼 때, 정치적 의미가 달라짐. 특별 장학금은 학교에서 시혜를 주는 것이고 반환은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함. 중앙인 글이 왜곡이 있더라도 우리가 제공한 정보에서 최대한 이해한 바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SNS 등의 창구를 통해 정보를 더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2학기에는 총장단 등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속기록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선제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정기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학교와 빠르게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이를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리더스 포럼과 확대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 의결 안건

1. 확대운영위원회 안건

- 중앙대학교 선거시행세칙 개정
-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개정

- '중앙대학교 선거시행세칙 개정과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을 2020학년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에 대한 의결 -> 총 10단위 중 찬성 10단위, 반대 0단위, 기권 0단위
-> '**가결**'

□ 기타 안건

- 다음 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확대운영위원회로 대체 진행
- 10월 5일 추석연휴 직후이다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성을 고려하여 줌으로 회의 진행
- 리더스 포럼 때 복장 : 깔끔한 복장 착용 요망 시작 전에 총학생회실에서 모여서 이동. 학과대표자 한정이지만 전체 인원이 100명이라 단위별 집행부도 참석 가능할 것 같음(약 30명 정도)
- 15시 진행에 있어 교수님에 따라 출석 인정서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당일에 총장단에게 따로 문의하여 참석에 문제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아 보임.
- 언론사는 최소 인원으로 들어 와있는 것으로 더 축소가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총장단과 처장단, 서울캠퍼스, 안성캠퍼스, 학생처 인원을 합쳐서 50명 이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명씩 참여가 어렵다고 함.
-> 언론사도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2명이 필요한 것처럼 회장단도 불가피하게 2명씩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계속 학교 측에 2명씩 요구했지만,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서 어렵다고 함. -> 최종 현장 참석 인원 서울캠퍼스 학생대표자 11명, 학생처 4명, 총장단+처장단 7~8명, 안성캠퍼스도 학생처 및 학생대표자 인원 -> 단위 요구안 답변을 보면 정말 중요한 2가지 의견을 내는데, 부회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회장단이 모든 과별 상황이나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부회장이 해당 과 회장단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역할이 있음.
- 확대운영위원회 중앙대학교 발전 방향 관련 안건 -> 등록금 반환 관련한 내용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등록금 반환이나 학사적인 문제를 학운위에서 논의를 하면 학교와의 논의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안건 내용이 계속 제자리일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음. 이는 리더스 포럼으로 빼고 코로나로 인해 학생자치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나 유학생 학생회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안건 공지하면 될 것 같음.
- 학교 본부와의 논의 자리 마련할 때 -> 2시간 전에 서울대학교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간의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마련될 예정이라고 함. 이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음.